

국공립 박물관 전시 행정담당자의 의식 연구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Exhibition Administrator of National Museums

Author 차동익 Cha, Dong-ik / 정희원, 동아대학교 대학원 조형디자인학과 박사수로

Abstract An exhibition administrator, one who works in the exhibition space of museums and exhibition halls, has carried on various tasks in order to improve the exhibition standard and viewer's satisfaction. Although exhibition administrators have a variety of direct perceptions regarding an exhibition in the actual on-site space, a study on their consciousness was absent. Thus, this study was to comprehend the awareness of how the consciousness of exhibition administrators, who directly understand the various matters regarding the exhibition on-site, was structured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sciousness of exhibition viewers and designers. For the study, Q-Methodology, which can scientifically manage the consciousness such as awareness and the acquired attitudes through individual experiences from a specific group, was applied. The classification of 33 Q-methodology research questions was carried out with 18 exhibition administrators, who are working at either national or public museums and exhibition halls in Korea, and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using the QUANL PC program was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provided the following 4 types: 'viewer attraction and exhibition method oriented', 'exhibition standard oriented', 'public relations oriented' and 'the public and government's interest oriented'. Each type showed significant characteristics.

Additionally, it showed that 'exhibition standard oriented' was the common type after comparing the type of consciousness among the 3 groups of people, such as an exhibition administrator, an exhibition designer, and a viewer. It indicated that the types of 'public relations oriented' and 'the public and government's interest oriented' from the consciousness category for the exhibition administrator were the most independent type, not being found in any of the other groups. And th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exhibition viewers and designers was identified after examining the Pearson's correlation among the 3 groups.

Keywords 전시디자인, 전시 행정담당자, 의식 유형화, Q 방법론
Exhibition Design, Exhibition Administrator, Consciousness Sorting, Q-Methodolog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박물관과 전시관 등의 전시공간 조성단계에서는 전시 디자이너의 제안과 학계 전문가의 자문, 전시 행정담당자의 참여 등에 의한 복합적인 협동작업을 통해 기획과 조성이 이루어지며, 조성된 전시공간은 전시 행정담당자 등에 의해 기획 및 연구, 운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리, 홍보 등 전시수준을 향상시키고 최종소비자인 관람자의 관람만족도 향상을 위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전시공간은 초기 구성만으로 관람객에게 평가를 맡기는 수동적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전시수준과 관람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실무와 학계, 그리고 전시현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시와 관련된 다각적 측면의 분석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시 행정담당자는 전시공간의 직접적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는 물론 전시품과 관람객, 기획전시 등 전시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한다. 전시사업 수행사의 전시디자이너는 전시관의 초기 조성단계와 확장단계 등 특정단계에서 참여하지만 전시 행정담당자는 전시관 구성단계에서는 물론 조성 후의 단계까지 기획·관리를 하게 되며, 전시관 구성단계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유지·관리의 차원에서 기획하고 보완을 하게 된다.

이처럼 전시 행정담당자는 전시기획의 단계에서부터 전시구성 프로세스의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고, 구성된

전시공간의 수준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진행하며, 관람자의 반응을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등 전시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인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행정담당자의 의식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한편, 관람객의 반응, 전시공간과 관람동선의 구성, 전시방식, 전시요소 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전시관람자의 행위와 반응 등을 전시 행정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느끼고 있으므로 전시와 관람간의 소통은 전시 행정담당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의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전시분야의 행정과 관련한 연구를 파악한 결과, 학예사 자격제도에 대한 연구¹⁾가 있으나 박물관의 인력확보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연구여서 전시에 대한 행정담당자의 의식파악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행정박물에 대한 연구²⁾에서는 공공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물을 의미하는 행정박물에 대한 연구여서 역시 행정담당자의 의식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시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전시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전시 행정담당자들의 의식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의 의식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전시관람자의 의식과 전시 디자이너의 의식³⁾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범위와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시 행정담당자의 의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박물관은 역사계, 미술계, 자연사계, 이공계 등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역사계(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과 이공계(과학관)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미술계(미술관)과 자연사계(동식물원 등)은 연출방법과 관람행태, 행정업무 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 박물관과 과학관 사이에는 전시방법과 철학 등의 차이점도 있으나 전시성격에 맞는 공간구성, 관람동선, 전시물 확보·구성방안, 관람자 고려의 측면, 공사와 관련한 발주·시공에 대한 감독 등 전시와 관련된 행정을 포함한 공통적 요소가 있으며 이들 공통적 요소를 중심으로 의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시 행정담당자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전시 행정담당자는 전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의식을 유형화한다.

연구문제 2> 전시 행정담당자의 이러한 의식은 유형별

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지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고 분석한다.

연구문제 3> 전시 행정담당자의 의식은 전시디자이너와 전시관람자의 의식유형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한다.

1.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시 행정담당자의 의식을 유형화하기 위해 1953년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이 창안한 Q 방법론(Q-methodology)을 적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Q 방법론이 개인적 경험을 통해 획득한 태도와 지각 등의 의식을 과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Q 방법론은 특정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특정집단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태도, 가치관 등의 유사성에 따라 사람들을 집단으로 분류한다. 대상 집단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자분석방법도 유용하지만 대상 집단의 가치, 의식, 인지구조를 파악하는 경우에 인자분석방법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⁴⁾ Q 방법론은 특정집단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의식, 인지구조는 무엇이며, 다른 집단과는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인자분석방법을 사용하면 연구자는 특정 대상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차원을 발견할 수 있지만, Q 방법론을 사용하면 연구자는 특정 대상에 대해 특정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⁵⁾

이러한 Q 방법론은 개인의 인식차이를 확인하고 유형화하는데 적합하고 개개인마다 다른 인식구조에 따른 유형의 이해가 가능하여⁶⁾ 다양한 연구를 통해 유용성이 밝혀졌으며 외국에서는 Q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가 언론학뿐 아니라 심리학, 정치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다.⁷⁾

따라서 특정 대상의 의식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 수단인 Q 방법론은 전시 행정담당자들의 의식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주며, 전시에 대한 행정담당자들의 인식을 유형화하고 객관적으로 총체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2. 전시분야의 행정

2.1. 전시의 개념

전시란 관람자에게 정보 전달, 체험 제공, 기념,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1) 최선영, 박물관 전문 인력확보를 위한 학예사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국민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 박신열, 지방자치단체 행정박물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3) 차동익, 전시디자이너와 전시관람자의 의식비교 연구,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통권16호, 2010

4) 최현철, 사회통계방법론, 나남, 2007, p.357

5) Ibid., p.357

6) 한승주, 성과급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정서적 대응,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116

7) 최현철, op.cit., p.357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창출하는 활동이 전시디자인이다. 전시를 위해서는 전시의 목적이나 기능에 대응한 공간과 전달하고자 하는 전시물이 필요하며, 전달 내용을 받아들이는 전달 대상, 그리고 전달의 행위 시점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시는 단지 미적이고 공간적 전시물의 배치만이 아니라 전시물과 방문객 간의 관계에 기반을 둘 때 비로소 성공적이다.⁸⁾

또 전시관람은 전시디자인의 기획의도에 따라 반응하도록 노출되어 있으므로 관람자는 디자이너와 행정담당자들의 기획자가 유도하는 관람의 흐름을 따라 순차적 체험을 하게 되며 전시관람은 전시물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시공간 내에서 만들어진 의도된 전달 목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시는 단순히 전시물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관람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람자와의 소통여부가 중요하다. 이러한 소통을 위해 전시디자이너와 전시 행정담당자는 전시방법, 전시매체, 공간구성, 동선유도 등을 통한 전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시도하고 개선한다. 이처럼 수많은 전시요소에 대한 다양한 접근은 궁극적으로 전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소통을 추구하는 것이다.

2.2. 전시분야 행정업무

우리나라 국·공립 박물관과 전시관의 행정부서는 크게 운영지원부서와 학예·전시연구부서의 두 개 부서로 나뉜다. 명칭의 차이가 약간씩은 있으나 운영지원부서에서는 서무, 복무관리, 시설관리, 재무관리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학예·전시연구부서에서는 전시연구, 전시품 관리, 기획전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전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예·전시연구부서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전시기획, 학예연구, 그리고 교육운영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시기획팀에서는 전시계획, 전시품 관련업무, 전시자료 연구·관리, 기획전 기획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학예연구팀에서는 전시품 관련, 학예연구자료 관련 등의 업무를, 그리고 교육운영팀에서는 교육·행사 프로그램 등 각종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학예·전시연구부서의 전시 행정담당자들은 상기의 업무뿐만 아니라 전시시설 시공, 전시시스템, 전시정보구축, 콘텐츠 업그레이드, 홍보 등 전시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렇게 다양한 업무의 최종적 목표는 전시수준의 향상을 통한 관람수준과 관람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 전시행정담당자는 이처럼 다양한 업무에 참여함으로써 전시에 대한 폭넓고 현실적이며 직접적인 인지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답변 요청은 관리차원의 행정적 처리업무를 지원하는 운영지원부서는 제외하였으며, 전시기획팀과 학예연구팀, 그리고 교육운영팀에서 전시연구와 학예연구 등 전시와 직접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학예·전시연구부서의 전시 행정담당자에게 설문문의 답변을 요청하였다.

<표 1> 국·공립 박물관과 전시관 부서구성 및 업무내용의 예

	세부구분	업무내용
운영지원 부서	경영기획과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된 사항 소요인력 확보 등 조직편제, 정원관리 및 운영
	운영지원과	세입세출의 출납, 각종 수입 징수 및 관리, 결산업무 국유재산의 관리,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홍보협력과	뉴스레터·홍보물·홍보 기념품 제작 및 배포, 보도자료 언론기관, 관련 기관과의 협력
	시설관리과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개선공사 수립·추진·사후관리
학예·전시 연구부서	전시기획과	전시관 종합전시 기본계획 기획·수립 중·장기 전시품 교체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상설전시관의 운영 총괄, 특별기획전 기획 및 운영 분야별 전시자료의 수집·보존·연구 및 제작·관리
	학예연구과	전시품의 구입·대여·기증·기탁·관리 분야별 학예연구자료의 연구 조사·수집·보관·전시·고증
	교육운영과	장·단기 과학교육 발전방안 연구기획 및 제도발전 교육·행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교사 및 교육관련 자원봉사자 모집·섭외·활용 전시장 안내요원 운영

3. 전시 행정담당자의 의식 조사·분석

3.1. 연구설계

(1) Q 문항 선정

<표 2> Q 문항으로 선정된 진술문

Q 문항	
1	전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2	전시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3	전시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4	관람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독특한 연출매체가 필요하다.
5	시공사 선정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6	전시시설 시공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7	전시시설 시공사의 기술력과 마인드가 향상되어야 한다.
8	전시컨텐츠 구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중요하다.
9	전시안내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 교육이 중요하다.
10	전시 설계사의 디자인자질 향상이 필요하다.
11	관람자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
12	복잡한 매체보다 단순하지만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매체가 중요하다.
13	전시관람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전시가 중요하다.
14	전시관람자의 행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5	첨단시스템의 도입이 전시효과에 중요하다.
16	단순관람이 아닌 체험형 전시 관람요소가 중요하다.
17	전시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한 연출매체 선정이 중요하다.
18	전시공간의 효율적 적용이 중요하다.
19	안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20	세부적인 전시연출도 중요하지만 전체 공간의 구성이 중요하다.
21	화려한 불거리보다 기억에 남는 요소전달이 중요하다.
22	RFID 등 전시물에 대한 이해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23	관람동선의 구성이 중요하다.
24	전시관의 성격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25	조명연출의 효과적 적용이 중요하다.
26	유지관리와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다.
27	전시관들이 모두 비슷해 보이지 않도록 차별화가 중요하다.
28	온라인 연계 등 다각적 관람정보제공이 중요하다.
29	전시관 홍보를 위한 효과적 방안이 필요하다.
30	전시컨텐츠의 질적수준 확보가 중요하다.
31	전시관 위치 선정시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32	일회성 관람이 아니라 다시 찾고 싶도록 기획해야 한다.
33	기획전시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

8) Bertron Schwarz Frey, designing exhibitions, 전시를 디자인하다, 한영호 역, 초판, 기문당, 2009, p.7

Q 문항(Q-statement)은 대상에 대한 진술문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Q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진행(2010. 3. 21~2010. 4. 18)하여 143개의 진술문을 선정하고, 전시디자인 실무담당자, 전시디자인 전문가와의 4차에 걸친 심층면접(2010. 4. 21~2010. 5. 24)을 통해 Q 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Q 문항은 국공립 박물관과 전시관에 근무하는 전시 행정담당자에게 공통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선정된 Q 문항은 소수의 대상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검토 및 문제점 수정·보완을 통해 33개 항목을 Q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2) P 표본 선정

P 표본(P sampling)은 Q 문항을 분류하는 응답자를 말한다. 일반 통계방법에서는 표본연구를 일반화하기 위해 많은 응답자를 요구하지만 Q 방법론에서 P 표본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⁹⁾ Q 방법론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사람이 변인이지 표본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험자의 수는 요인을 생성하고 요인들 간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한데 이는 개인 간의 차이(inter-individual)가 아니라 개인 내의 중요성의 차이(intra-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를 다루는 것이므로 피험자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¹⁰⁾

본 연구에서는 P 표본 구성을 위하여 전국 국·공립 전시관과 박물관의 학예·전시연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시 행정담당자를 대상으로 Q 문항의 분류를 요청하였으며, 15개 기관의 전시행정담당자 19명이 Q 문항의 분류에 참여(2010. 8. 2~2010. 8. 18)하였다.

<표 3> Q 분류에 참여한 전시 행정담당자

순번	소속	N
1	국립중앙과학관	3
2	국립과천과학관	1
3	국립민속박물관	2
4	국립대구광주과학추진단	1
5	국립김해박물관	1
6	국립춘천박물관	1
7	국립생물자원관	1
8	국립청주박물관	2
9	국립중앙박물관	1
10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1
11	용인문화유적전시관	1
12	공립서대문자연사박물관	1
13	전쟁기념관	1
14	서울역사박물관	1
15	경기도과학교육원 과학전시관	1
	계	19

Q 문항의 분류에 참여한 19명의 분류 중 판별이 불가능한 1개의 분류를 제외한 18개의 분류로 분석하였으며 18개의 분류에 참여한 응답자(P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9) 최현철, op.cit., p.361

10) 김홍규, P 표본의 선정과 Q 소팅, 주관성 연구 통권 제15호, 2007, p.6

<표 4> P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f	%	계(명)
성별	남자	8	44	18
	여자	10	56	
연령	20대	3	17	18
	30대	7	39	
	40대	8	44	
경력	5년이하	5	28	18
	6년-10년	7	39	
	11년-15년	2	11	
	16년 이상	4	22	

(3) Q 분류

Q 분류(Q sorting)는 P 표본으로 선정된 각 대상자가 특정의 주제나 상황에 관한 자신의 마음 속 태도를 스스로 모형화시키는 것으로 Q 문항의 진술문을 읽은 뒤 그 진술문들을 강제분포(forced-distribution)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Q 소팅에서의 강제분포는 특정항목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Q 문항들이 한 사람 안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각 표본은 전체적인 시각 속에서 특정항목의 상대적 의미와 중요도에 따른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Q sort 분포는 Q 문항에 기술된 문항 번호를 확인하여 가장 동의하지 않는 문항부터 -4를 2칸, -3은 3칸, -2는 4칸, -1은 5칸, 가장 동의하는 문항부터 +4를 2칸, +3은 3칸, +2는 4칸, +1은 5칸으로 구성하였으며 0은 5칸으로 구성하였다.

<표 5> Q sort 분포의 모양

점 수	(disagree)		(neutral)					(agree)	
	-4	-3	-2	-1	0	1	2	3	4
칸의 수	2	3	4	5	5	5	4	3	2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P 표본으로 선정된 18명에 대한 소팅이 완성된 후 수집된 자료를 점수화 하기위해 Q 문항을 소팅한 분포도에서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경우(-4)를 1점으로 시작하여 중립인 경우(0) 5점, 가장 동의하는 경우(+4)는 9점을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점수화 하였다. 그리고 부여된 점수를 진술문 번호순으로 코딩한 후 QUANL PC 프로그램

<표 6> 연구절차 및 내용

	내 용
1단계: Q 문항 선정	① Q 모집단(Q population) 구성 - 문헌연구를 통한 Q모집단 구성 (2010. 3. 21~2010. 4. 18), 143개의 진술문이 수집됨 ② Q 문항(Q statement) 선정 - 전시디자인 전문가, 전시디자인 실무담당자와의 4차에 걸친 심층면접(2010. 4. 21~2010. 5. 24), 사전조사 - 수정·보완하여 33개 항목을 Q 문항으로 선정
2단계: P 표본 선정	① 전시 행정담당자 19명을 P-표본으로 선정
3단계: Q 분류	① Q 분류 요청(2010. 8. 2~2010. 8. 18), 판별 가능한 18개의 Q 분류 확보(강제분포(forced-distribution) 방식) ② 분류된 결과와 진술문 이외의 의견 등에 대해 인터뷰
4단계: 자료처리 및 분석	① 부여된 점수를 진술문 번호순으로 코딩 ② QUANL PC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인분석(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실시·분석

을 통해 주요인분석(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 및 내용은 <표 6>과 같다.

3.2. 연구결과 분석

(1) 결과내용

전시 행정담당자의 의식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로 다른 4개의 유형(factor)이 발견되었으며 그들의 의식 상태에 따라 비슷한 인식이나 의견 등을 가진 응답자끼리 묶기 때문에 각 유형은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게 된다. 이들 4개의 유형은 그 특성에 따라 제1유형은 ‘관람객 유입과 전시방법 중시형’, 제2유형은 ‘전시수준 중시형’, 제3유형은 ‘홍보 중시형’, 제4유형은 ‘국민과 정부의 관심 중시형’이라 명명하였다.

분석은 배리맥스(varimax)회전방법으로 회전되었으며 각 유형들의 아이겐값(eigen value)과 유형별 설명변량(variance)은 <표 7>과 같다. 누적은 0.5034으로 나타났으며 Q 방법론에서는 설명변량에 집착하지 않는다.¹¹⁾

<표 7> 유형별 아이겐값과 변량의 비율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아이겐값	4.5234	1.9044	1.3866	1.2473
변량의 비율	.2513	.1058	.0770	.0693
누적비율	.2513	.3571	.4341	.5034

또 <표 8>은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계수(r)를 나타낸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상관이 깊다는 의미이고 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독립적인 관계임을 나타낸다. 유형간 상관관계계수에서는 제1유형과 제3유형이 0.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3유형과 제4유형이 0.03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반 통계방법에서는 요인 간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Q 방법론에서는 높은 상관계수가 반드시 두 요인 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론적 개념들 간의 연계와 분리를 통해 참가설(genuine hypothesis) 생성의 단초를 제공한다.¹²⁾

<표 8> 유형간의 상관관계 계수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1유형	1.000	.133	.427	.106
제2유형	.133	1.000	.087	.089
제3유형	.427	.087	1.000	.030
제4유형	.106	.089	.030	1.000

그리고 유형별 분포와 인자가중치는 <표 9>와 같다. 유형은 네 가지로 분류되었고, 제1유형은 8명, 제2유형은 4명, 제3유형은 4명, 제4유형은 2명으로 분류되었다.

11) 김홍규, Q 방법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p.181

12) ibid., p.183

<표 9> 유형별 분포와 인자가중치

구분	Type 1		Type 2		Type 3		Type 4	
	No.	Factor weight	No.	Factor weight	No.	Factor weight	No.	Factor weight
분류	3	.7766	1	.9135	7	.2512	2	1.0196
	6	1.0388	4	1.9140	10	.4011	9	1.4106
	8	.8241	5	.7139	14	1.3653		
	11	1.1221	12	1.1933	15	2.6855		
	13	.8989						
	16	.8027						
	17	1.6175						
	18	2.1754						

(2) 제1유형 : 관람객 유입과 전시방법 중시형

4가지 유형 중 첫 번째 유형은 ‘관람객 유입과 전시방법 중시형’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높은 표준점수를 나타낸 Q문항 32번(일회성 관람이 아니라 다시 찾고 싶도록 기획해야 한다)과 Q문항 31번(전시관 위치 선정 시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에서는 관람객의 지속적 방문과 접근성의 고려가 중요하다고 나타나 관람객의 유입을 중시하고 있었다.

또 Q문항 13번(전시관람자의 행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와 Q문항 14번(전시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한 연출매체 선정이 중요하다), Q문항 17번(전시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한 연출매체 선정이 중요하다), Q문항 24번(전시관의 성격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에서는 관람자와 전시관을 고려한 전시방법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문항이 표준점수 1.00 이상의 긍정적 동의군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점수 1.00 이상의 부정적 동의군에는 설계사와 시공사의 개선과 관련된 문항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Q 방법론에서는 정해진 문항과 정해진 칸의 수에 의해 강제분포(forced-distribution)를 시행하므로 33개의 모든 항목이 중요하다 판단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항목을 선택해서 분류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정적 동의군에 속한 항목은 상대적인 분류에 의해 부정적 동의군에 속한 것이므로 실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표 10> 제1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1.00 이상)

	진술문		표준점수
	Q	내용	
긍정적 동의	32	일회성 관람이 아니라 다시 찾고 싶도록 기획해야 한다.	1.99
	13	전시관람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전시가 중요하다.	1.91
	14	전시관람자의 행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50
	31	전시관 위치 선정 시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1.44
	17	전시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한 연출매체 선정이 중요하다.	1.15
	24	전시관의 성격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1.00
부정적 동의	9	전시안내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 교육이 중요하다.	-1.16
	7	전시시설 시공사의 기술력과 마인드가 향상되어야 한다.	-1.33
	10	전시 설계사의 디자인자질 향상이 필요하다.	-1.40
	8	전시시설 시공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1.79
	6	전시컨텐츠 구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중요하다.	-1.81
	5	시공사 선정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1.88

(3) 제2유형 : 전시수준 중시형

두 번째 유형은 '전시수준 중시형'으로 나타났는데 Q 문항 26번(유지관리와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다)가 2.25의 매우 높은 표준점수를 나타냈으며 Q문항 11번(관람자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가 두 번째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Q문항 3번, 16번, 30번, 13번, 4번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7개의 문항 모두가 전시물과 전시내용, 관람자 눈높이, 콘텐츠의 질적수준 등 전시의 수준을 중요시하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전시수준을 중요시하는 내용은 부정적 동의군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부정적 동의군에서는 홍보, 전시관의 이미지지달, 시공사 선정방법 등 전시수준과는 거리가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11> 제2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1.00 이상)

	진술문	표준점수
긍정적 동의	26 유지관리와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다.	2.25
	11 관람자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	1.72
	3 전시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1.41
	16 단순관람이 아닌 체험형 전시 관람요소가 중요하다.	1.18
	30 전시콘텐츠의 질적수준 확보가 중요하다.	1.16
	13 전시관람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전시가 중요하다.	1.11
	4 관람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독특한 연출매체가 필요하다.	1.03
부정적 동의	29 전시관 홍보를 위한 효과적 방안이 필요하다.	-1.13
	24 전시관의 성격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1.36
	18 전이공간의 효율적 적용이 중요하다.	-1.42
	20 세부적인 전시연출도 중요하지만 전체 공간의 구성이 중요하다.	-1.44
	25 조명연출의 효과적 적용이 중요하다.	-1.51
5 시공사 선정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2.01	

(4) 제3유형 : 홍보 중시형

세 번째 유형은 '홍보 중시형'으로 나타났다. Q문항 29번(전시관 홍보를 위한 효과적 방안이 필요하다)가 2.05로 매우 높은 표준점수를 나타내 홍보에 대한 중요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Q문항 27번(전시관들이 모두 비슷해 보이지 않도록 차별화가 중요하다)와 Q문항 28번(온라인 연계 등 다각적 관람정보제공이 중요하다)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문항들 모두가 홍보의 의미를 담고있어 가장 높은 표준점수의 3개 문항 모두가 홍보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긍정적 동의군에는 정부의 지원, 관람자 행태

<표 12> 제3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1.00 이상)

	진술문	표준점수
긍정적 동의	29 전시관 홍보를 위한 효과적 방안이 필요하다.	2.05
	27 전시관들이 모두 비슷해 보이지 않도록 차별화가 중요하다.	1.28
	28 온라인 연계 등 다각적 관람정보제공이 중요하다.	1.27
	2 전시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1.24
	14 전시관람자의 행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23
	31 전시관 위치 선정시 접근성을 고려해야한다.	1.05
부정적 동의	3 전시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1.00
	23 관람동선의 구성이 중요하다.	-1.07
	7 전시시설 시공사의 기술력과 마인드가 향상되어야 한다.	-1.26
	6 전시시설 시공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1.45
	11 관람자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	-2.12
15 첨단시스템의 도입이 전시효과에 중요하다.	-2.23	

연구, 전시관 접근성 고려, 학계의 연구 필요 등이 포함 되어 있었으며, 부정적 동의군에는 홍보의 중요성과는 거리가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5) 제4유형 : 국민과 정부의 관심 중시형

네 번째 유형은 '국민과 정부의 관심 중시형'으로 나타났는데 Q문항 1번(전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와 Q문항 2번(전시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가 가장 높은 표준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국민과 정부의 관심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문항은 2.27의 매우 높은 표준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13> 제4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1.00 이상)

	진술문	표준점수
긍정적 동의	1 전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2.27
	2 전시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2.27
	11 관람자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	1.70
	5 시공사 선정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1.23
	20 세부적인 전시연출도 중요하지만 전체 공간의 구성이 중요하다.	1.13
	30 전시콘텐츠의 질적수준 확보가 중요하다.	1.13
부정적 동의	4 관람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독특한 연출매체가 필요하다.	-1.32
	31 전시관 위치 선정시 접근성을 고려해야한다.	-1.37
	15 첨단시스템의 도입이 전시효과에 중요하다.	-1.56
	28 온라인 연계 등 다각적 관람정보제공이 중요하다.	-1.70

(6) 모든 유형에서 일치된 의견

분석된 네 가지 유형은 각각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3개의 문항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이 중 Q문항 21번(화려한 볼거리보다 기억에 남는 요소전달이 중요하다)는 모든 유형에서 긍정적 동의를 나타냈으며, Q문항 33번(기획전시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와 Q항목 19번(안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공통적 부정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Q 방법론에서는 부정적 동의군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실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표 14> 모든 유형에서 긍정·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긍정적 동의	21 화려한 볼거리보다 기억에 남는 요소전달이 중요하다.	.44
부정적 동의	33 기획전시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	-.02
	19 안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29

(7) 기타 의견

응답자인 전시 행정담당자에게 Q 분류를 시행한 후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받을 수 있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대표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박물관과 과학관은 시대상과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수준 높은 전시 콘텐츠의 기획과 확보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과감한 콘텐츠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전시공간의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적 요소에 대한 인력확보가 절실하다. 예를 들어 과학관의 경우 관련 전공자 육성을 통한 상근(정규직) 과학커뮤니케이터의 육성이 꼭 필요하다.

셋째, 작동 전시물이 관람객에게 인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작시 흥미요소, 이해도, 견고성 등을 철저히 고려해야 최고의 전시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전시물제작과 관련한 기획이나 기술의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운영자에 대한 교육(연차별로 필히 이수하여야 할 보수교육과 평가를 포함)과 안정된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수준 높은 교육과 서비스가 제공 될 것이다.

다섯째, 박물관과 과학관이 수익창출 단계로 진입이 가능한 국민인식 변화와 소득수준의 상승이 이루어 질 때까지의 지속적인 지원(예산, 인력 등)과 관리가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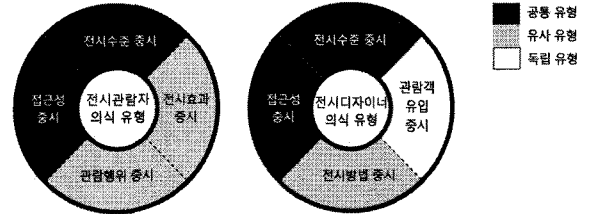
3.3. 전시디자이너, 관람자 의식과의 비교분석

선행연구인 전시디자이너와 전시관람자의 의식비교 연구(13)에서 각각 4개의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시 행정담당자의 의식은 4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표 15> 전시관람자, 전시디자이너, 전시 행정담당자의 의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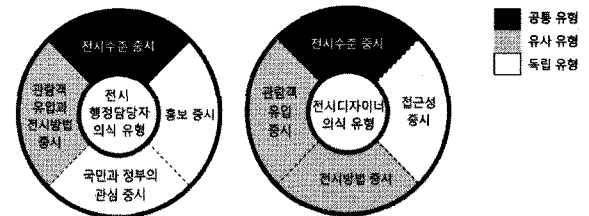
	유형명	eigen value	N
전시관람자 의식 유형 (N=51)	제 1유형 전시수준 중시형	9.2177	17
	제 2유형 관람행위 중시형	3.7736	11
	제 3유형 전시효과 중시형	2.3165	5
	제 4유형 접근성 중시형	2.2074	8
전시디자이너 의식 유형 (N=36)	제 1유형 관람객유입 중시형	9.3759	13
	제 2유형 전시방법 중시형	3.3233	9
	제 3유형 전시수준 중시형	2.3330	9
	제 4유형 접근성 중시형	1.4613	5
전시 행정담당자 의식 유형 (N=18)	제 1유형 관람객 유입과 전시방법 중시형	4.5234	8
	제 2유형 전시수준 중시형	1.9044	4
	제 3유형 홍보 중시형	1.3866	4
	제 4유형 국민과 정부의 관심 중시형	1.2473	2

전시관람자와 전시디자이너의 의식유형 비교에서는 '전시수준 중시'와 '접근성 중시'에 공통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유형은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큰 의미에서 보면 전시디자이너의 '전시방법'에 '관람행위'와 '전시효과'가 부분적으로 포함되므로 <그림 1>과 같이 유사 유형을 정리할 수 있고, 전시디자이너의 '관람객 유입 중시'가 관람자의 의식에서 나타나지 않은 독립적인 의식유형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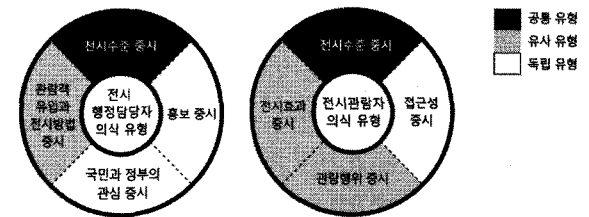
<그림 1> 전시관람자와 전시디자이너의 의식 유형 비교

전시행정담당자와 전시디자이너의 의식유형 비교에서는 '전시수준 중시'가 공통 유형으로, '관람객 유입 중시'와 '전시방법 중시'가 유사 유형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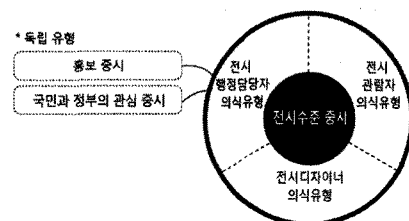
<그림 2> 전시행정담당자와 전시디자이너의 의식 유형 비교

전시행정담당자와 전시관람자의 의식유형 비교에서는 '전시수준 중시'가 공통 유형으로, '전시효과 중시'와 '관람행위 중시'가 '관람객유입과 전시방법 중시'와 유사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전시행정담당자와 전시관람자의 의식 유형 비교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시 행정담당자와 전시디자이너, 그리고 전시 관람자의 3자간 의식 유형을 비교하면 '전시수준 중시'가 3자의 공통 유형이었으며, 전시 행정담당자 의식유형의 '홍보 중시'와 '국민과 정부의 관심 중시'유형은 타 그룹에서 나타나지 않은 가장 독립적인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전시행정담당자, 전시디자이너, 전시관람자의 3자간 의식 유형 비교

13) 차동익, 전시디자이너와 전시관람자의 의식비교 연구,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통권16호, 2010

또 통계패키지 SPSS WIN ver12.0을 사용하여 세 그룹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전시관람자와 전시디자이너 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0.960으로 가장 높고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행정담당자와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6> 세 그룹간의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

		전시관람자	전시디자이너	전시행정담당자
전시관람자	Pearson 상관계수	1	.960**	-.128
	유의확률(양쪽)		.000	.477
	N	33	33	33
전시디자이너	Pearson 상관계수	.960**	1	-.122
	유의확률(양쪽)	.000		.497
	N	33	33	33
전시 행정담당자	Pearson 상관계수	-.128	-.122	1
	유의확률(양쪽)	.477	.497	
	N	33	33	33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4.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 행정담당자의 의식 유형 연구결과 4개의 유형이 발견되었으며 제1유형은 ‘관람객 유입과 전시방법 중시형’, 제2유형은 ‘전시수준 중시형’, 제3유형은 ‘홍보 중시형’, 제4유형은 ‘국민과 정부의 관심 중시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든 유형에서 일치된 의견은 Q문항 21번(화려한 볼거리보다 기억에 남는 요소전달이 중요하다)가 모든 유형에서 긍정적 동의를 나타냈으며, Q문항 33번(기획전시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와 Q항목 19번(안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공통적 부정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시 행정담당자와 전시디자이너의 의식유형 사이에는 ‘전시수준 중시’가 공통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전시 행정담당자와 전시관람자의 의식유형에서도 ‘전시수준 중시’가 공통유형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시 행정담당자와 전시디자이너, 그리고 전시관람자의 3자간 의식 유형 비교에서는 ‘전시수준 중시’가 세 그룹 모두의 공통적 유형이었으며, 전시 행정담당자의 의식 유형의 ‘홍보 중시’와 ‘국민과 정부의 관심 중시’유형은 타 그룹에서 나타나지 않은 가장 독립적인 유형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세 그룹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시관람자와 전시디자이너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시 행정담당자들의 의식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전시관람자의 의식과 전시 디자이너의 의식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시기획시 지침이 될 수 있는 세부적이고 현실적 대안마련을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향후 본 연구와 같은 방법과 범위를 넘어서서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김홍규, Q 방법론, 초판,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 2008
2. 최현철, 사회통계방법론, 3쇄, 나남, 파주, 2009
3. Bertron Schwarz Frey, designing exhibitions, 전시를 디자인하다, 한영호 역, 초판, 기문당, 서울, 2009
4. 김홍규, P 표본의 선정과 Q 소팅, 주관성연구 통권 제15호, 2007
5. 박신열, 지방자치단체 행정박물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전북대 석사논문, 2008
6. 양재찬, 경제기사의 뉴스가치에 대한 기자와 수용자의 인식유형과 상호지향성 연구, 한국외국어대 박사논문, 2009
7. 차동익, 전시디자이너와 전시관람자의 의식비교 연구, 한국브랜딩디자인학회 통권16호, 2010.9
8. 최선영, 박물관 전문 인력확보를 위한 학예사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2009
9. 한승주, 성과급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정서적 대응, 고려대 박사논문, 2009

[논문접수 : 2010. 08. 31]

[1차 심사 : 2010. 09. 18]

[2차 심사 : 2010. 09. 29]

[게재확정 : 2010. 10. 08]